

유난히 많았던 사건·사고 ‘비극의 한가위’

장성서 아들 부부·어머니 숨진 채 발견...광주서 이웃집 강도 살해 화순서 교통사고로 1명 사망·16명 부상...여수 등 화재도 잇따라

모처럼 만난 가족·이웃끼리 정을 나누는 한가위였지만, 가족과 이웃 간의 갑부립 사건과 가정 폭력 신고가 잇따랐다.

연휴 첫날인 지난 18일 오전 10시30분께 장성 삼서면 한 단독주택에서 고향을 찾은 50대 자식 부부와 70대 어머니 등 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노모인 A(여·74)씨는 주택 안방, 아들 B(55)씨는 창고, B씨 아내의 집 앞 주차된 차량 뒷좌석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고 B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도 현장에서 발견됐다.

대전에 거주 중이던 B씨 부부는 이날 새벽 4시 40분께 어머니 홀로 거주하는 장성에 도착한 것

로 조사됐다.

경찰은 4장짜리 유서를 토대로 B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중이다.

자신의 아파트 옆 집에 침입, 강도행각을 벌이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을 숨지게 한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17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아파트에 침입,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 살인)로 40대 남성 C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C씨는 지난 11일 자신과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평소 안면이 있는 60대 여성 D씨 집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D씨를 묶어놓고 흉장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 과정에서 D씨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은 뒤 비명이 밖으로 새 나가지 못하도록 이불까지 덮어놓고 달아났다. D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D씨가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C씨는 D씨 가족에게서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자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D씨인 것처럼 허위로 문자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광주지역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는 420가정에 대한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연휴 기간 가정 폭력 신고는 일 평균 6.3% 늘어났다. 다만, 전남지역 가정폭력신고는 전년도에 견줘 14.7% 줄었다.

이외 연휴기간 교통사고와 화재도 잇따랐다.

추석날인 지난 21일 낮 12시 20분께 화순군 사평면 왕복 2차선 국도에서 SUV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시외버스와 충돌, SUV 운전자가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이에 앞서 20일 밤 11시 50분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한 자동차 부품 보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2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났고, 이날 오후 2시께 여수시 오천동 한 식품 가공 공장에서도 불이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5대 범죄(살인·강도·상범죄·절도·폭력)의 경우 하루 평균 26.4건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7.9% 줄었다고 밝혔다. 전남 경찰청은 같은 기간 내 하루 평균 교통사고가 3.8건 발생, 지난해보다 14.3% 감소했다고 잠정 집계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화재 현장 골든타임 내 도착률 전남 소방차 전국 평균 밀돌아 신속한 초동 대처 방안 필요

전남지역 소방차량의 화재현장 골든타임 내 도착률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익산)의원이 소방안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소방차량의 화재현장 골든타임(7분) 도착률은 전국 17개 시도 평균 67%로 집계됐다.

전남의 경우 58.3%로 전년도(59.2%)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제도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의원은 "소방차량 이동 거리 등의 영향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화재 사고의 특성을 감안,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학동 붕괴참사 현장서 추모제 추석인 21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붕괴참사 현장 앞에서 열린 희생자 추모제에서 유가족들이 헌화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선거 앞두고 조합원들에 금품 전남낙농업조합장 법정 구속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낙농업협동조합장이 법정 구속됐다. 조합장 임기가 절반 이상 지났고 재판이 진행될 지 무려 2년 만에야 1심 선고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늦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중근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낙농업협동조합 조합장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A씨는 2019년 3월 13일 치러진 제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며칠 앞둔 지난 2019년 3월, 담양 지역 조합원들에게 현금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치러진 제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8표 차이로 당선됐다.

A씨는 "관련 조합원들이 돈을 받았다는 날짜에 일행과 다른 지역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해당 지역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며 식당 주인, 일행 진술서 등을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바, 전형적 매패행위로, 살포된 금품 액수도 적지 않다"면서 "A씨는 범행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해당 지역단위조합의 조합장직을 수행했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한 사람들을 허위진술했다고 비난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군대에서 축구하다 무릎 다쳐 수술 법원 "상이등급 기준 해당 된다"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무릎을 다쳐 수술을 받았음에도,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보훈청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육군 복무 시절인 지난 2015년 8월,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 왼쪽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이듬해 제대한 뒤 2017년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상이등급에 미달한다'며 상이등급 비해당결정 처분을 받아 광주지방법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은 재해보상 군경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재해보상 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 공무원으로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7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A씨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상 7급 장애인 '한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적절한 치료에도 관절인데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mm이상인 사람'인 점을 주장하며 보훈청 처분의 취소를 주장했다.

광주지법 행정 1단독 서효진 부장판사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상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며 "보훈청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파업에 사측이 투입한 대체 차량 연료공급선 누가 잘랐나

합평경찰, 용의자 등 출석 요구 노사 갈등 심화 속 파장 예고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SPC 파리바게뜨 광주지역 운송 노동자들을 대신해 제빵 제품 배송을 맡은 차량의 연료공급선을 누군가 고의로 절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노조 파업에 따라 사측이 대체 차량을 투입하자 노조는 운행을 막고, 사측은 해당 운송 노동자와 계약도 해지하는 등 노사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빚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22일 합평경찰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배송 대체 차량의 연료공급선을 누군가 고의로 절단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용의자 1명과 용의차량 소유주 2명을 특정해 경찰에 출석토록 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2시께 합평군 엄다면 무안광주고속도로 합평나비휴게소에 주차된 SPC 생산 제품 배송차 연료 공급선 절단 사건과 관련, 이들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최초 신고당시 차량의 연료 공급선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절단된 상태였고 차량이 주차된 바닥 연료가 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배송차량 앞뒤로 광산IC부터 휴게소까지 승용차 2대가 따라간 사실,

이들 차량에서 내린 남성이 주차된 배송 차량 바닥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한 상태다. 또 해당 배송 화물차 밑에서 나와 다른 차량으로 옮겨 타고 휴게소를 빠져 나가는 장면도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을 파업 관련자로 추정하고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요구가 발부된 3명 모두 아직 인건되지 않았지만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SPC 그룹이 생산한 제빵 제품을 광주·전남으로 배분하는 민주노총 호남샤니 광주공장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2지부 SPC지회 노조는 올해 1월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며 배송차

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노조는 반발해 파업에 나섰다.

노조가 지난 2일 파업에 들어간 뒤 광주 포함 전국 11개 물류센터 운수사 조합원들도 지난 15일부터 동맹파업에 나섰다.

SPC씨는 지난 16일 운송사와 운송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운송사도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개인당 400만~600만원) 청구와 함께 위 수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김영권 광주SPC지부장은 해당사건과 관련 "상온과 냉장물류를 섞어서 배송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배송대체 차량 일부를 따라 간 적은 있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 조합원들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관련자가 있다면 이는 개인적인 우발적 행동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피스텔 신축부지

타 용도 변경 가능, 회사 사정상 급매

- ▶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대지 515㎡(구 156형)
지하 1층, 지상 9층
46㎡(구 14형), 64호실
매매 - 18억

- ▶ **신안동 엄마요양병원 옆**
대지 582㎡(구 176형)
지하 1층, 지상 10층
49㎡(구 15형), 72호실
매매 - 21억

중개환영. 010-3605-5000

남구 덕남동 임야

- ▶ 661㎡(구. 200형), 지분 매매
- ▶ 장/단기 최고 투자처, 개발 호재 다
-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 매매 - 6천만원, 중개환영 010-6837-4700